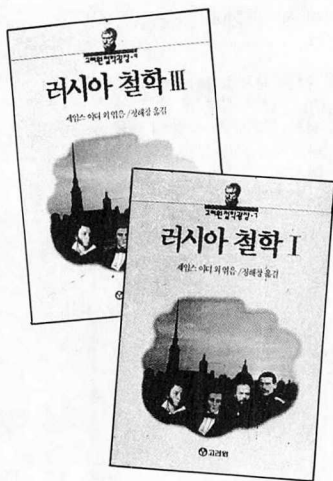


# 미국학자들의 러시아철학 연구

고려원刊 「러시아철학」전3권



미국의 철학전공 대학교수들이 엮은 「러시아철학」이 현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로 재직중인 정해창씨에 의해 옮겨져 고려원에서 출간되었다. 「러시아에도 철학이 있는가」라는 일반인들에게 “그렇다. 개설하는 데에만도 3권 분량이나 된다”고 이 책들은 말하는 듯하다.

러시아의 철학적 저술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종합한 이 책은 비단 전공자뿐 아니라 러시아 문화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다. 편자들의 서문에 의하면 “러시아의 철학적 저술에는... 독자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문과 각 장의 도입부에서 러시아철학 전반에 관한 친절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역자후기를 빌리자면, 우선 러시아철학의 역사는 짧다고 한다. 뚜렷한 철학적 경향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18세기 중엽이라는 것.

러시아철학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며 “대학 밖에서 발전”하였고 그 스타일은 “문학적, 무절제적, 당파적”이라고 한다. 세련되고 분석적인 서구철학에 비해 대체로 수필적이며 평론적인 러시아철학은 그리하여 “문예적인 철학”에 근접해 있다는 게 역자의 말이다. 이와 같은 비학구적 성격과 순수문학에의 참여는 특별한 집중력과 중용의 부정이라는 그 철학적 사고에 기인한다. 농노제, 전제군주, 집단공동체 등에 의해 대변되는 러시아적 삶의 현실과 헤겔, 마르크스 등의 “사회역사적 반인격주의”와 같은 서구철학의 이론에 의해 이중으로 위협받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적 특성을 가진 러시아철학은 대체로 이 책의 장들이 구성된 것처럼 슬라브주의, 서구주의, 허무주의, 민주주의, 종교와 문화 비평, 마르크스주의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러시아 철학이 사회에 대한 비판에서 형이상학적 사유로, 다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러시아의 문학·종교·사상을 총망라한 최초의 비평적 철학서로 간주되는 이 책은 “개인의 존재적 결정 또는 구속”이 보편적이었던 러시아의 현실, 살아있는 항의자로서 이에 과감히 반기를 든 러시아 철학자들의 인간중심적인 사유가 재해석되어 있다고 역자는 평가한다.

고려원/A5신/각 476면 내외/각 6800원

# ‘창비시선’ 신작시집 세권

강은교의 「벽속의 편지」 외



창작과비평사에서 강은교씨의 「벽속의 편지」, 박경석씨의 「차씨 별장길에 두고 온 가을」, 김정환씨의 「희망의 나이」 등 세 권의 시집이 출간되었다.

“진지하고 우울했던 시대”가 지나 “전세가 뒤바뀌어 화려한 화장품 내음”만 진동하는 타락한 세속 속에서도 끊임없이 삶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각고의 자세가 돋보인다.

강은교 시인의 「벽속의 편지」는 ‘사랑의 혁명’에 의해 하찮은 것들의 위대한 가치가 실현되는 그날을 열망한다. “이 세계에는 사실 사소한 인간들, 고독한 사물들이 얼마나 많은가. 거대한 권력과 상품적 제도 앞에서 소리없이 허물어지는 뼈들이 얼마나 많은가”고 후기에서 반문하는 그녀는 곧이어 “그런 뼈들의 힘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면?”이라는 설의법으

로 대답을 대신한다. 그런 뼈들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바로 「벽속의 편지」이다. 사물의 소리를 무당처럼 번역해준다는 점에서 이 시집은 초기시집과 맞닿아 있으나, 사물의 소리를 그가 몸담은 세계형식과 접합하려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고 이야기된다.

「황제와 시」 「아내의 잠」에 이은 박경석 시인의 세번째 시집 「차씨 별장길에 두고 온 가을」은 이성부 시인의 말처럼 “생활이라는 테두리를 쳤바퀴 돌듯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꿈과 사랑을 끝내 버리지 않는 슬기로운 서민의 생활철학이 듬뿍 배어 있다”. “각별히 이념의 수렁을 경계”한다는 그는 그것을 “육화와 절제에 힘쓰겠다는 나름대로의 다짐”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시집은 “근래 우리 시단에서 가장 단정한 행과 연과 리듬 그리고 진솔의 형태를 지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김정환 시인의 「희망의 나이」는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라는 현실 앞에서의 시인의 희망과 절망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의 생동하는 리듬과 동적 상상력은 시의 현실미를 깊게 해주며 더욱 깊고 넓어진 행간은 쉽게 페이지를 넘기지 못하게 한다. “다성적”이고 “과잉된” 통사구조를 실험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이 시집은 그러나 그의 일관된 시론의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성과 서정성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것, 정확히 말해 그것이 나의 관심사는 아니다. 내게 시의 문제는, 사회적 서정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라는 그의 後記가 그것이다.

창작과비평사/B6신/각 130면 내외/각 3000원

## 民族秘傳 정신수련법

토정 이지함, 매월당 김시습, 다산 정약용 — 그들은 어떤 정신수련을 하였는가? (단)의 실존 주인공 봉우 권태훈 옹의 구술과 회귀한 문헌자료를 통해 밝혀낸 우리 민족 비전의 정신수련법

《용호비결龍虎秘訣》 《선기수략睿機數略》, 《도장道藏》 등 회귀 문헌들의 원문 주해를 통해 원상법(原象法), 시해법(尸解法), 사시산(四時算) 등 수천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우리 겨레의 정신수련법을 최초로 정리 해설한 책. 주문과 부적, 축지법, 둔갑법 등 좌도방(左道方)의 세계도 새롭게 조명된다.

봉우 권태훈 옹 감수 / 정재승 편저 / 6,500원

정신세계사의 신간  
\*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대) 팩스 739-8791

〈책방 정신세계〉 전화 741-7033(통신판매도 합니다)

히말라야 성자들의 삶과 가르침

## 超人生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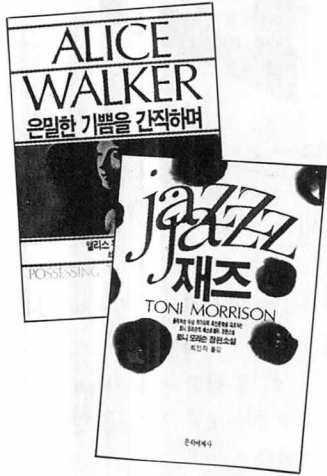
불멸의 영혼과 육체를 지닌 채 물질세계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는 히말라야의 초인들 — 그들이 펼치는 기적과 초월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생생히 재현한 놀라운 기록!

인도, 티벳 등 히말라야 일대에 실존하는 초능력자 80여 명의 생활, 그들이 행하는 불가사의하고 신비한 기적을 3년여에 걸친 현지 탐사를 통해 직접 목격한 미국인의 방대한 리포트. 수천년 전부터 인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온 초인들의 단체 성형제단(the Holy Brothers)의 비밀.

베어드 T. 스톨퍼 / 정창영 옮김 / 7,000원

# 미국 흑인문학의 대표작

「은밀한 기쁨을 간직하며」 「재즈」



현대미국의 흑인문학을 대표하는 두 여성작가의 최근작이 동시 출간, 그간 간헐적으로 소개됐던 이들 문학의 진수를 선보이고 있다. 토니 모리슨의 「재즈」와 앨리스 워커의 「은밀한 기쁨을 간직하며」가 그것. 두 작품 모두 올해 장기간에 걸쳐 「뉴욕타임즈 북 리뷰」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른 바 있으며, 풀리처상 수상자로서의 두 작가의 수준 높은 문학성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20년대 뉴욕 할렘가를 배경으로 흑인부와 주변부의 다양한 인물들을 섬세하고 서정적인 문체로 묘사해나간 「재즈」는 독특한 줄거리 전개방식으로도 눈길을 끄는데, 번덕스럽고 말 많은 나레이터에 의해 이야기가 나선형으로 확대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준다.

화장품의판원인 '조'가 아내 몰래 사귀던 어린 처녀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장례식에서 소동을 벌인다는 치정사건을 표면적 줄거리로 삼고 있는 이 소설은 그러나, 결국 따뜻한 화해에로 이르는 흑인 특유의 건강함과 낙천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달아오르다가 속삭이고, 슬픈 애조를 띠다가도 장난을 치는 듯한 재즈선율의 특징이 이 작품의 구성방식을 상징한다.

여성들의 생기를 절개하는 충격적인 아프리카 관습을 소재로 한 「은밀한 기쁨을 간직하며」는 이 '여성할레'의 전통이 고대나 중세가 아닌 현대에 엄존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고발함으로써 흑인여성들의 문화적·사회적·정치적 위상을 날카롭게 해부해내고 있다.

어린시절 어머니가 기독교로 개종한 덕분에 할레의식을 면한 '타슈'는 성년이 된 후 자기 나라를 온통 휩쓸고 있던 독립운동의 열기에 감화를 받아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수호한다는 생각으로 할레를 자청하지만, 할레의식 후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고통받던 그녀는 결국 전통과 관습의 이름 아래 여성들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하는 할레의식에 저항하면서 비로소 자신을 되찾지만, 할레의식의 집현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사형대에 오르게 된다.

작가에 의하면, 현재 아프리카와 극동, 중동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여성들 중 약 9억 내지 10억명이 이 할레의식을 받았다고 보도되며,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풍습이 있는 나라의 이주민들 사이에서 여성할레 의식이 점차 확산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학세계사/A5신/각 288, 316면/각 5000원

# 한국적 캐릭터 창조한 어린이책

민음사 '강우현의 창작그림책' 시리즈



창작그림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미키마우스'와 같은 캐릭터를 창조하여 해외출판을 시도한 유아용 도서가 출간되었다. 중국에만 사는 희귀동물인 팬더를 캐릭터로 삼고 그 이름을 각각 '싱싱'·'랑랑'·'장장'으로 지은 것은 그래서 국적불명의 발상법이 아닌 작가와 출판사의 의욕에 찬 산물로 여겨진다.

특히 기왕의 그림책들이 글에 삽화를 덧붙이는 형식임에 비해 화가 자신이 글과 그림을 입체적으로 구성한 「싱싱」 「랑랑」 「장장」은 국내 창작그림책 분야에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그림책들은 그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특기할 만하다. 「싱싱」은 판넬에 모래를 뿌리고 그 위에 물감과 크레용으로 그린 판넬화기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랑랑」은 포스터칼라를 이용한 기존의 채색화기법이, 「장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색지정

기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 세번째의 색지정기법은 흑백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그림의 세부마다 색을 지정하여 인쇄하는 기법으로, 채색화를 원색분해하여 인쇄하는 기존의 방식에 비해 색감이 풍부하고 다양해 전혀 색다른 느낌을 갖게 한다. 이렇게 캐릭터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창출해냄으로써 연작으로서의 맛을 한층 살려내고 있다.

국제 유수의 그림책원화전 수상작가로 우리나라에서보다도 국제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작가 강우현씨의 상상력은 아이들보다도 더 아이디어 면모를 보여준다. 밥 먹는 것보다 그림그리기를 좋아하는 싱싱은 신호등을 모두 켜내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든다. 어른들에 의해 산꼭대기 벼랑까지 쫓긴 싱싱은 커다란 풍선을 그려서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장장은 말뚝꾸리기 팬더. 아빠가 마시는 커피에 몰래 간장을 섞기도 하고 암탉들을 한 줄로 묶어 기차놀이도 한다.

그의 작품은 이렇듯 계몽과 교훈의 메세지 대신 놀이와 장난이 아이들의 삶 바로 그 자체라는 사실만을 표현해 낸다. 어린이들은 다만 글과 그림에서 바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해 내면 된다는 것이 어린이책에 대한 그의 철학인 셈이다. 따라서 이 연작은 어린이들을 억압하지 않으며, 책을 읽고 보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되는 드문 예에 속하게 된다.

“모든 어린이가 그림으로 생각하고 그림으로 말하게 하자”는 따지의 '구호'처럼 독자대상(4~7세) 어린이들의 시각범위를 충분히 고려한 판형 또한 자랑거리로 추가된다.

민음사/B5변형/각 28면/각 4000원

##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는 재미있고 유익한 진선의 책들”



진선출판사 720-5990 · 1

